



1 K-뷰티 엑스포 행사 현장 2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뷰티산업 정보 총망라 킨텍스 'K-뷰티 엑스포 2021' 개최

전시컨벤션센터인 경기 고양 킨텍스는 지난 10월 7~9일 제전시장에서 '2021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K-뷰티 엑스포)'를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K-뷰티 엑스포는 매년 약 37개국에서 2천여 명이 넘는 해외바이어와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뷰티 박람회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해외바이어 일대일 매칭 수출상담회, K-뷰티 인사이트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트라와 공동 주관한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에는 국내외 유망 뷰티업체와 37개국 178개 사의 바이어가 참여했다.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왕홍(網紅)'을 포함한 100명을 초청해 온라인 현장 중계방송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동반성장 구매상담회 및 국내 MD 유통상담회 등 행사 참여기업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뷰티산업 트렌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K-뷰티 인사이트 컨퍼런스'도 열렸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신한카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등 전문가가 주요 연사로 참여했다. 또 민텔과 이노랩, 영국화장품학회 등 해외기업 및 협회 전문가들도 나와 2022년 뷰티 트렌드를 전망하고 해외 산업 동향을 전했다.

국내의 유명 유튜버들이 참여한 무대에서는 관객과 소통하며 피부 타입별 관리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다.

엑스포는 '클린 뷰티관', '스마트 뷰티관', '원료패키징관', '탈모관' 등 다양한 콘셉트의 특별관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는 "K-뷰티 엑스포는 브랜드 관점에서 접근 관리해야 자체적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며 "내년엔 엑스포를 러시아에서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①

